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7년 2월 조사 -

2017년 3월 3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 HP <http://www.tdb-di.com/>

국내경기를 끌어올린 제조업의 개선

~ 해외 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전망 ~

(조사대상 2만 3,804사, 유효회답 1만 82사, 회답율 42.4%,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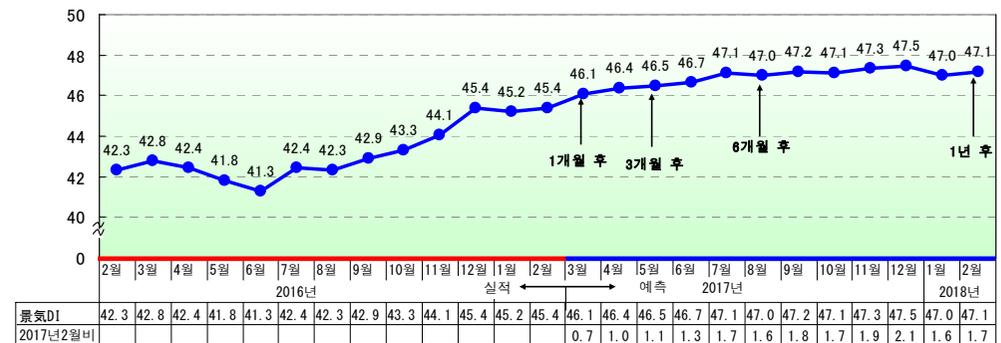
1. 2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5.4로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인력부족으로 기업의 코스트부담이 늘고 있으나, 자동차판매 및 동 부품수출이 호조로 관련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으며, 반도체 제조장치의 호황이나 건설기계의 회복으로 제조업이 개선되어 체감경기는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미국 등 해외 리스크가 다수 존재하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부동산』 『소매』 『제조』 등 7개 업계가 개선, 『운수·창고』 등 3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자동차판매가 호조로 추이하였으며 이는 관련된 기계제조나 화학품제조를 포함해 폭넓은 업종이 개선되는 요인이 되었다. 부동산수요의 고조로 인하여 지방도시의 지가상승이 확대되는 한편, 광범위하게 퍼진 인력부족의 영향은 기업의 코스트부담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3. 『홋카이도』 『미나미칸토』 『큐슈』 등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개선, 『토호쿠』 『키타칸토』 『호쿠리쿠』의 3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공공공사의 증가가 지방의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미나미칸토』에서는 중고주택시장이 활발화된 점이 눈에 띄었다.

< 2017년 2월의 동향 : 회복세가 지속 >

2017년 2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5.4로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주목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일수뇌회담에서는 통상이나 외환분야에 대한 발언은 없어 당초의 우려는 일단 잠잠해졌다. 2월의 국내경기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력부족 및 원유가격의 상승, 엔화약세로 인하여 기업의 코스트부담이 증가하였지만, 자동차판매 및 동 부품수출의 호조가 화학품 등의 관련업종에 파급되었으며, 반도체 제조장치의 호황이나 건설기계의 회복과 같은 제조업의 개선이 전체 체감경기를 끌어올렸다. 국내경기는 자동차관련의 호조나 기계제조 등에 의하여 제조업이 개선,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 향후전망 : 완만한 회복이 지속 >

향후의 국내경기는 실질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며, 개인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지가 포인트이다. 임금상승을 위한 호재로서 양호한 고용환경·노동개혁의 추진, 기업업적 개선을 통한 임금상승의 본격화 등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경제의 회복 등 세계경제의 회복을 배경으로 한 수출호황이나 인력부족을 대비한 생력화(省力化)투자 등 설비투자가 증가가 예상되며, 2016년 보정예산의 집행으로 인한 공공공사의 증가도 플러스요인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이 강해져 미 정부의 통상정책이나 유럽정치의 혼란 등 정치리스크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점이 우려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향후의 경기는 미국 등의 해외 리스크를 다수 떠안고 있지만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